

전 남

순천 벼육묘용 상토사업 마찰



보리밭 사잇길로 걸어가면~

강진지역 어린이들이 22일 도암면 부흥마을 보리밭 논두렁을 따라 봄나들이를 하고 있다. 겨우내 자란 보리이삭들이 파릇파릇하다. <강진군 제공>

市, 구제역 확산 우려 지역업체로 사업자 제한 관외업체 “원재료 50% 경주·포항산” 특혜 주장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 불꽃이 벼 육묘용 상토(床土=모판흙) 사업에까지 옮겨붙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2011년 벼 육묘용 상토 보조사업과 관련해 지역업체 제한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와 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2월 사업비 4억6900여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제역 확산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근거로 지역업체로 상토 공급 사업자를 제한했다. 시는 전남도 관내에 사업자와 공장을 둔 (주)대동, 코코바이오, (주)성화 등 회사 3곳과 벼 육묘용 상토 공급계약을 맺고 23일부터 벼 재배농가에 상토 공급을 시작한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A회사는 “전남도 관내업체의 생산시

율이 협소해 관외 업체와 OEM계약을 체결해 타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유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제한조치는 구제역 방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A회사는 “관내업체 역시 경주와 포항에서 생산된 ‘제올라이트’와 ‘규조토’를 원재료로 50% 내외로 함유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지역내 자급자족이 불가능한데 구제역을 이유로 원재료 유입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회사는 순천시가 선정된 3개

업체의 생산능력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A회사는 “C회사는 순천시가 추진하는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D회사는 전남도 관내에 공장등록도 없으며 나머지 S회사는 소규모 업체로 지난해 실적을 고려할 때 공급을 할 수 없어 타지역 회사에서의 주문자위탁 생산방식(OEM)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지역제한만 했을 뿐 업체선정은 읍·면·동 선정위원들이 하는 것으로 특혜성 시비는 어불성설이다”며 “농협 중앙회와 계약 업체들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를 선정했으며, 공장등록증·사업자등록증·상토 검사서적 등 관련된 모든 것들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구제역 발생에 따라 순천시·곡성군·화순군 등은 전남지역에 생산설비를 갖춘 상토 공급업체로 제한했고, 해남군은 전남·북업체로 제한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자연자원 훼손행위 집중단속 내장산국립공원, 이달말까지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소장 정석원)는 입장료 폐지 이후 탐방객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공원이용으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4월 한달간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집중단속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동안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백암사무소는 봄 행락철을 맞아 ▲고지대의 야생식물 채취 ▲도·남벌 ▲백두대간보호지역 셋길출입 ▲불법주차 ▲공원내 흡연행위 ▲취사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정석원 소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yongho@

‘강진청자축제’ 연계 개최 제11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전통부문 ‘디자인부문’ 1인 2점 출품 강진군 청자박물관은 500여년 동안 청자문화를 꽃피운 강진을 널리 알리고 청자문화의 전통 계승과 저변 확대를 위해 ‘제11회 대한민국 청자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제39회 강진청자축제’의 기획 행사 일환으로 열리는 청자공모전은 국내외 대학생 이상의 개인과 단체에서 ‘전통 부문’과 ‘디자인 부문’으로 나눠 1인당 2점씩 출품할 수 있다. 1차는 사전접수로 오는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출품 신청서와 작품 설명서 등을 갖춰 우편접수하며 심사 결과는 6월 15일 발표한다. 또 2차는 1차를 통과한 작품에 대한 실물접수로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접수해 7월 15일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시상금 대상 1명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1000만원을 주는 등 최종 입상자 65명에게 32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7월 30일 ‘제39회 강진청자축제’ 개막식장에서 이뤄진다. /동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h@

民-軍 벽을 허물다

장성군-상무대, 문화체육시설 공동이용 협약 획기적 사례... 공설운동장 신축비 200억 절감

장성군과 상무대가 양 기관의 공동 상생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장성군과 상무대는 지난 21일 상무대 보병학교 대회의실에서 김양수 장성군수, 윤광섭 상무대 통합방호사령관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체육시설 공동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상무대는 장성군이 사용을 희망할 경우 부대 운영을 고려해 연병장, 동춘관, 체육관 등 부대의 문화체육시설을 지역주민 등 민간에 개방한다. 장성군은 상무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군의 대표 문화체육시설인 장성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하우스, 홍길동 체육관, 공설 운동장 등의 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장성군은 상무대 장병의 친군민화를 위해 상무대 영내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에 대한 현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민(民)과 군(軍)이 공동 사용하기로 했다. 상무대가 이처럼 군사시설 이용을 민간에게 대폭 개방한 것은 창설 이래 처음 있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군(軍)의 획기적인 개혁이자 지자체와 군(軍)이 상생하는 우리나라 최초 사례로 여겨진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문화체육시설의 증설없이 장성군민이 상무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당장 시급한 공설운동장 신축비 2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yongho@

이명흠 장흥군수, 다산 목민대상 수상

순천시장, 행안부 장관상



이명흠 장흥군수 노관규 순천시장

이명흠 장흥군수와 노관규 순천시장이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다산 목민대상’에서 대상(대통령 표창)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다산 목민대상’은 행정안전부와 다산 연구소 공동 주관으로 다산의 목민 정신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창의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상이다. 장흥군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2009년)를 차지하고 ▲군민을 위한 열린 행정 실천 ▲군인 재육성장학기금 100억원 조성 ▲장흥 노력항~제주 성산포항간 쾌속 정기여객선 취항 ▲고향 할머니장터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천시는 국민 권익위원회로부터 4년 연속 ‘청렴 도시’로 인정받았으며 주민참여 예산제와 효율적인 재정 집행으로 높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순천만의 생태적인 가치를 살려 지난 2006년 10만명에 머물던 관광객을 260만명으로 끌어올리면서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yongho@

순천만 정원박람회 조직위 내달 출범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가 다음달 출범할 전망이다. 22일 순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원박람회조직위 구성을 위한 출연금 예산 5000만원 지출 권한 통과와 23일 열린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의 조직위원 선임작업에 착수했다. 위원 15인은 시장과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각 5인씩 추천하고, 조직위 사무국 기구와 인원은 조직위원장과 시의회의장이 협의

를 거쳐 구성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남도에 재단법인 설립을 신청, 허가를 얻고,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친후 다음달 말에 조직위가 공식 출범, 활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박람회 수익사업 등을 위해 재단법인(조직위)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009년부터 조직위 설립에 나섰으나 시의회의가 투명 운영방안 미흡 등을 이유로 출연금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걸면서, 설립이 3년째 지연돼 왔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k-water·열린 의사회 의료봉사 지역 확대

k-water(한국수자원공사)와 ‘열린 의사회’는 지난 20일 전국 최초로 지방상수도 수탁지역인 함평지역 65세 이상 주민과 다문화가족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K-water는 그동안 탐 주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실

시했으나 수혜자들로부터 좋은 반응 나타나자 올해 상수도 공급지역인 함평군 대동면과 엄다면까지 의료봉사 지역을 확대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열린 의사회’ 내과·외과·치과·한방과·산부인과·피부과 등 6개 과목의 의료진이 참여했다. 또한 함평수도관리단(단장 박지수) 봉사단을 비롯해 지역 유관단체 등 60여명이 참여해 환자 수송과 안내, 보조역할은 물론 아·미용 봉사 등 자원봉사를 펼쳐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송기태기자 song@

Real estate advertisement grid with 12 columns. Each column contains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like location, area,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 Columns include: 1. 대인동상일부동산, 2. 다산공인중개사, 3. 신진공인중개사, 4. 금당 공인중개사, 5. 태영부동산, 6. 호남랜드공인중개사, 7. 중앙공인중개사, 8. 물류창고 부지구함 매대·임대, 9. 고흥군 금산면 토지매매, 10.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11. 복구 동림동 토지매매, 12. 화순 남면 매리 집중지매매.